

아이린 향한 비난, 지나치다...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

사과 했음에도 갖은 추측성 폭로 비판 무분별하게 제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건 부당”... ‘옹호’ 글도 올라와

‘갑질 논란’을 빚은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29·배우현)에 대한 비난의 도가 너무 지나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린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스타일리스트 겸 패션에디터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갖은 추측성 폭로로 인해 그녀에 대한 비판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SM 일본인 연습생 출신인 후쿠하라 모네는 소셜 미디어에 “나도 연습생 시절 아이린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슬기 언니가 지켜줬다”고 적은 뒤 파장이 커지자 “정정이 필요하다. ‘괴롭힘’이라는 말은 너무 넓은 의미의 용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후쿠하라의 글은 아이린 갑질 인성 논란을 뒷받침하는 추가 폭로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거세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아이린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건 부당하며 그녀를 옹호하는 글들이 다수 소셜 미디어 등에 올라오고 있다.

아이린과 5년간 함께 했다는 댄서팀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앨범 준비부터 방송 콘서트까지 거의 쉴 틈 없이 함께 해 온 것 같다. 신경 안 쓰는 듯하면서도 매 활동마다 댄서들 가장 먼저 마음 써주고 챙겨주는 섬세한 사람. 함께 활동하는 댄서들에게 한명한명 손편지도 마음을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적었다.

아이린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 사진도 함께 올린 그녀는 “내가 언니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옆에서 같이 활동해 온 댄서로서, 마음만은 그 누

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 믿는다. 주현 언니 항상 고마워요”라고 덧붙였다.

레드벨벳의 안무 디렉터 최선희 씨도 “주현(아이린)에 대해 너무 큰 오해가 쌓이는 것 같다. 제가 아는 아이린은 일에 대한 에너지와 디테일이 강한 귀여움이 넘치고 정 많은 폭순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 간혹 의견 대립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날에는 항상 먼저 문자 보내고 의견 조율하고 감사함과 파이팅을 건네는 정 많고 예쁜 친구다. 그럴 때 더 열심히 할 힘이 생긴다. 너무 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청했다.

메이크업아티스트 수경도 “그동안 샴에서는 별 일 없었나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샴(샴)을 노래 다니면 얘기는 나온다. 그런데 아이린은 좋은 얘기가 많은 연예인”이라고 했다.

이번 A씨의 폭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하다. 사회 전반에 계급,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터진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레드벨벳은 아이돌계에서 톱그룹이고 그 중에서 화려한 외모를 보유한 아이린은 팀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다. 강자보일 수 있는 아이린의 위상 때문에, 그녀의 사과에도 대중 사이에서 더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기획사 관계자는 “레드벨벳은 대형기획사 소속의 인기그룹이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우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갑질’ 논란이 그런 인식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이린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그녀를 무조건 매도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린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도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로 남을 추측성 글과 기사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아이린이 주변 스태프들이 평소 눈여겨본 물건을 선물해주는 등 미담도 다수 있다”면서 “2018년 평양 공연 때도 인원 제한 때문에 매니저, 스태프가 거의 함께 하지 못했는데 팀 동생들을 잘 챙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평소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가 커지면서 스타일리스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도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뒤따라서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번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에 대한 분노 건도 무대 도중 인이어가 빠져, 무대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린은 평소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한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아이돌로서는 비교적 뒤늦은 나이인 스물세살에 데뷔한 그녀는 슬기, 웬디, 조이, 예리 등 다른 레드벨벳 멤버들과 나이 차가 나는 편이다.

막내 예리와의 여덟 살 차이다. 이로 인해 멤버들을 자신이 챙기려 한다는 생각도 강했다.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린에게 붙는 ‘단색’이라는 수식은 그녀가 쉽게 갑질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짓는 표정으로 안다”면서 “겉그림은 보이그룹보다 유독 공격을 많이 받는 편이다. 이에 따라 걸그룹 리더들은 원래 자신의 성향보다 성격이 세지는 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린도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와이스 “레트로 첫 도전, 특별해...도발적·성숙한 매력”

오늘 정규 2집 발매

그룹 트와이스(TWICE)가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재킷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더 도발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지난 23일 공식 SNS 채널에 새 영상 ‘트와이스 “아이즈 와이드 오픈” 재킷 메이킹 필름(TWICE “Eyes wide open” Jacket making film)’을 게재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처음으로 레트로 콘셉트에 도전했다.

네이처 콘셉트의 순수함이 돋보였던 전작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보다 더 도발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드레시한 의상을 입었다”며 “우리의 또 다른 시도를 담은 앨범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새 음반을 설명했다.

또 “90년대 화보처럼 촬영하면서 신곡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가 진 절은 분위기를 표현해줬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오는 26일 오후 6시에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과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를 발표한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와 유튜브를 통해 스페셜 라이브를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한다.

이번 타이틀곡은 유럽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미국 80년대 신스 사운드를 섞은 레트로 풍의 신스 웨이브 장르로, 선과 악의 기로에서 갈등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워진 마음을 그렸다.

이번 노래는 글로벌 히트곡 메이커 멜라니 조이 폰타나(Melanie Joy Fontana)와 유

명 프로듀서 미셸 린드그렌 슈츠(Michel Lindgren Schulz)가 신스 소스들을 활용해 작곡했고, JYP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과 스타 작곡가 심은지가 작사를 맡았다.

신곡 음원과 퍼포먼스 일부가 최초 공개된 영상 ‘트와이스 “아이 캔트 스톱 미” 뮤직 비디오 플랫폼 티저(TWICE “I CAN’T STOP ME” M/V Platform Teaser)’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유튜브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에 올랐다.

투바투, 새앨범 선주문량 40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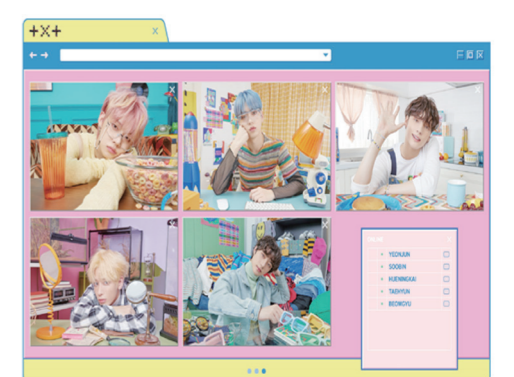
컴백을 하루 앞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새 앨범 ‘미니소드1 : 블루 아워(minisode1 : Blue Hour)’ 선주문량이 40만 장을 돌파했다.

25일 앨범 유통사인 드림웍스컴퍼니에 따르면 ‘미니소드1 : 블루 아워’ 선주문량이 지난 23일 40만 장을 넘어섰다. 이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난 9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의 국내외 선주문량을 집계한 숫자로 자체 신기록이다.

투바투는 지난해 3월 데뷔 이후 신인상 10관왕을 석권한 데 이어 음반, 음원, 해외 반응 등에서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새로운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앨범으로 자체 최고 기록을 예고하며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을 잇는 ‘빅히트 레이블 최강 막내’로서의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앨범은 ‘꿈의 장’ 시리즈에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 들려 주는 작은 이야기이다.



타이틀곡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는 다섯 멤버의 청량함과 소년미가 더해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표 디스코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앨범 발매 당일 같은 날 오후 7시 엠넷에서 방송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 쇼 : 블루 아워(Blue Hour)’를 통해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

정용화 “씨엔블루, 재계약과 함께 다시 달려보겠다”

올해 안에 새 앨범 발매...내달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예정

변곡점을 맞은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리더 정용화가 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은 정용화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3년 8개월 만의 컴백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재계약과 새 활동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용화는 “여러 일들이 있던 그동안의 상황에서 리더로서,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던 시간들을 보내오며 슬픔과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고 돌아왔다. “더러 속의 많은 고민들을 말

로 풀어놓기에는 그 책임의 무게가 컸던 것 같다”고도 털어놓았다.

“그동안 멤버들과 가족, FNC 회사 분들 및 많은 지인 분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1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씨엔블루를 지키고 그 이름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씨엔블루의 팬덤인 보이스(VOICE)와 함께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계약과 함께 다시 달려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저희가 편하게 풀어놓지 못한 고민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서로 생각을 나눌 때가 오



리라 믿는다”면서 “보이스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씨엔블루는 올해 안에 새 앨범을 발매한다. 11월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은퇴 선언’ 쯔양, 유튜브 영상 게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욕지도1’ 7월 촬영 영상 업로드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 은퇴를 선언했던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과거 촬영분을 업로드했다.

쯔양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욕지도1’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쯔양이 욕지도에서 김밥과 라면, 빙수 등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며 “지난 7월에 촬영했었던 욕지도 영상들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영상들을 올려야 하는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욕지도 영상들을 꼭 올리고 싶어서 업로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신 분들께 따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

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8월 유료광고를 받고도 이를 유튜브 영상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조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당시 쯔양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 제가 욕지도에서 촬영한 나머지 10개의 영상은 너무나도 열심히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으로 꼭 남기고 싶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스